

kt·한화 하위팀과 대결... “공은 둥글다”

T 타이거즈 전망대

힘겨운 한 주를 보낸 KIA 타이거즈가 2위와 격차 벌리기엔 나쁘다.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한 '호랑이 군단'의 길고 긴 한 주였다. KIA는 지난주 난적과 만남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 2위 NC 다이노스를 5.5 게임 차로 밀어냈다.

롯데전 싸움이 3연패 뒤 반전의 한 주를 보냈지만 올 시즌 가장 험난했던 시간이었다.

25일 첫 경기부터 연장 혈투였다. 이날 SK와 연장 10회 승부를 벌인 KIA는 상대 마무리 박희수의 끝내기 실책으로 어렵게 3연패에서 탈출했다.

26일에도 연장 승부였다. 이번에는 한 이닝을 더해 11회 승부를 펼쳤고, 김주찬의 2루타와 연속 고의의 사구로 만들어진 1사 만루서 안치홍의 땅볼로 두 경기 연속 끝내기쇼를 장식했다.

양현종의 시즌 첫 완투승을 묶어 3연승

오늘 '승리 요정' 정용운 선발

테이블 세터들 역할이 중요

과 함께 잠실로 갔지만 주말 3연전 출발도 아찔했다.

세 번째 연장승부. 이번에는 12회까지 험겨투기가 계속됐다. 이런저런 판정 악재 속에 어렵게도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이 났다. 어려운 상대와 계속된 연장 승부에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됐고, 이후 두 경기는 1승 1패로 마무리됐다.

지난주에 비하면 한결 여유 있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주중 최하위 kt 위즈와 홈 3연전을 치르는 KIA는 주말에는 대전으로 가 9위 한화 이글스를 만난다. 앞선 상대보다는 무게가 떨어지는 두 팀. 하지만 공은 둥글다.

kt는 주말 3연전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지만, 후반기 가장 잘 나가는 팀 NC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접전을 펼쳤다. 또 KIA는 kt와 가장 적은 7경기밖에 소화하지 않

■ 프로야구 중간순위(3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97	63	1	33	0.656	0.0
2	NC	96	57	1	38	0.600	5.5
3	두산	94	51	2	41	0.554	10.0
4	LG	93	49	1	43	0.533	12.0
5	넥센	98	51	1	46	0.526	12.5
6	SK	100	51	1	48	0.515	13.5
7	롯데	97	47	2	48	0.495	15.5
8	삼성	99	39	4	56	0.411	23.5
9	한화	96	38	1	57	0.400	24.5
10	kt	96	30	0	66	0.313	33.0

은 상황. 남은 후반기 싸움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상대이기도 하다.

한화에는 올 시즌 7승 1패로 앞서있다. 역시 방심할 수는 없다. 힘 있는 타선의 상대인 데다 후반기 첫 주말 3연전에서 8승 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롯데 자이언츠에 싸움이 3연패를 당한 기억도 있다.

승리를 부르는 정용운이 '화요 타이거

즈'의 기세를 잇기 위해 나선다.

KIA는 후반기 들어 진행된 화요일 두 경기에서 모두 연장전을 치렀다. 첫날부터 진을 빼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됐다. 어찌 됐든 결과는 모두 연장전 승리. KIA는 화요일 13연승을 달리고 있다.

정용운은 올 시즌 '승리 요정'이다. 후반기 두 경기에 나와 아쉽게 마운드에서 물러났지만 팀은 모두 승리를 기록했다. 정용운이 선발로 나온 8경기의 팀 성적은 7승 1패다.

kt 정성근과의 좌완 맞대결, 테이블세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성근은 KIA에 낯선 투수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투수의 공략을 위해 테이블세터가 부지런하게 공을 보고 움직여줘야 한다. 강행군 속에 페이스 떨어진 이명기의 반전이 필요한 새로운 한 주다.

한편 지난주 4개의 공을 담장으로 넘긴 이범호는 통산 9번째 300홀런 타이틀 자리를 노린다. 앞으로 두 개의 한방이 나오면 이범호의 300홀런이 기록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이 지난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서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범가너와 명품 투수전

SF전 7이닝 무실점... LA 연장 11회 3-2 역전승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왼쪽 어깨와 팔꿈치 수술 후 3년 만에 돌아온 정규리그에서 최고의 역투를 펼쳤다.

류현진은 지난 31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뽑아내며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안타 5개를 맞았으나 병살타 3개를 엮어 내며 실점 고비를 넘겼다. 평균자책점은 4.17에서 3.83으로 좋아졌다.

류현진은 이날 시즌 세 번째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펼쳤다.

선발로 등판해 무실점으로 강판한 것은 7이닝을 무실점으로 던져 승리를 따낸 2014년 8월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전 이래 1088일 만이다.

류현진은 총 85개의 공을 던져 52개를 스트라이크로 쏘았다. 최고구속은 148km/h 찍혔고,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컷 패스트볼의 제구 또한 나무랄 데 없이 좋았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선발 매디슨 범가너도 패투를 펼쳐 류현진은 0-0인 7회말 2사 1루 타석에 야스마니 그란달로 교체됐다. 팀은 3-2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다.

류현진은 동갑내기 절친한 친구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과의 한국인 투타 대결에서도 완승했다. 류현진은 황재균을 2회 2루수 땅볼, 5회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지난 25일 미네소타 트윈스전 이후 후반기 두 번째로 등판한 류현진은 1회에 공 9개 만에 삼진 2개를 슈어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류현진은 2회 1사 1루에서 황재균과 역사적인 한국인 투타 대결을 벌였다.

류현진은 먼저 스트라이크 2개를 쏘아낸 뒤 폴카운드 집전 끝에 148km짜리 빠른 볼로 내야 땅볼을 유도해 선행 주자 버스터 포지를 2루에서 잡았다.

3회 무사 1루에서는 범가너를 초구에 3루수 병살타로 요리하는 등 공 6개로 이닝을 끝냈다. 4회 무사 1루에서 펜스를 2루수 병살타로 엮은 류현진은 공이

어 나온 포지를 컷 패스트볼로 루킹 삼진으로 잡아냈다. 류현진은 5회 1루수 코디 벨런저의 호수비 2개로 아웃카운트 2개를 쉽게 채웠다. 두 번째로 만난 황재균은 결정구 체

인지업을 앞세워 공 3개로 헛스윙 삼진으로 마무리했다. 6회에도 세 번째 병살타를 슈어내며 무실점으로 막은 류현진은 7회 최대 위기를 맞았다.

류현진은 선두 조 패너에게 중전 안타, 펜스에게 중전수 앞 바가지 안타를 내줘 실점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포지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은 뒤 중견수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정확한 송구로 실점 고비를 또 넘겼다.

/연합뉴스

대권 도전 KIA, '구원왕' 김세현 영입

손동욱·이승호 벙센에 내주고

유재신과 2대2 트레이드 단행

'호랑이 군단'이 대권 도전을 위해 트레이드 카드를 꺼내 들었다.

KIA 타이거즈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31일 좌완인 손동욱과 이승호를 넥센 히어로즈에게 내주고 우완 김세현(사진)과 외야수 유재신을 받는 2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번 트레이드의 핵심은 김세현이다.

KIA는 '에비역' 손동욱과 올 시즌 2차 라운드에 통해 영입한 '고졸 루키' 이승호라는 미래 대신 현재를 선택했다.

김세현은 올 시즌 27경기에 나와 6.83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3패 7홀드 10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 36세이브를 수확하면서 '구원왕'에 오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올 시즌 1위 행보를 하면서도 불펜 난조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KIA는 'V11'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깜짝 트레이드에 나섰다.

백업 외야수 자원인 유재신은 빠른 발이 장점으로, 힘 좋은 외야에 스피드를 더해줬다.

앞서 김기태 감독의 트레이드 작전은 백발백중이었다.

고향팀 부임 첫해였던 2015년 한화 이글스와 4대3 트레이드를 통해 노수광, 오준혁, 유창식, 김광수를 영입했다.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던 김광수가 불펜의 필승조로 맹활약했고, 노수광은 외야의 세바람이 되어주었다.

지난 시즌 초반에는 넥센으로부터 무조건 트레이드로 서동욱을 데려왔다. 서동욱은 안치홍의 공백을 잇게 하는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며 5년 만의 '가을잔치'에 힘을 보탤다.

고효준의 영입도 성공적이었다. 지난해에도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SK와 이범호와 좌완 고효준과 우완 임준혁을 바꾸는 트레이드를 했고, 좌완 가름에 시



달리던 KIA 마운드에 솟음이 트었다. 올 시즌 1위 행진에도 '트레이드 효과'가 작용했다.

시즌 초반 SK와 다시 한번 트레이드에 나선 KIA는 4명의 선수를 주고받았다. 이성우·이흥구(이상 포수), 노수광·윤정우(외야수)가 SK 유니폼을 입었고 포수 김민식과 외야수 이명기, 내야수 최정민·노관현이 KIA 선수가 됐다.

김민식은 올 시즌 센터라인을 보강한 KIA는 이명기라는 톱타자를 앞세워 1위 질주 중이었다.

다시 한번 트레이드 카드를 선택한 김기태 감독의 작전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가 우승할 줄 몰랐어요” 지난 31일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 코스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레이디스 스코티시오픈 우승자 이미향(28)이 트로피를 들고 미소짓고 있다.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한 이미향은 허미정(28)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014년 11월 미즈노 클래식 이후 LPGA 투어 통산 2승째. /연합뉴스

이미향, 비행기 놓치고 골프백 잃어버리고...우여곡절 우승

LPGA 스코티시 오픈

4R 6언더 맹타 대역전극

이미향(24·KB금융그룹)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가 함께 주관한 레이디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말 그대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향은 지난 31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노스 에어셔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1개

로 막아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한 이미향은 허미정(28)과 카리 웹(호주)을 1타 차로 제치고 2014년 미즈노 클래식 이후 LPGA 투어에서 2승째를 기록했다.

이미향은 2라운드까지 4오버파에 그쳤다. 1라운드에서 1타, 2라운드에서 3타를 잃으면서 선두와 무려 9타 차이나 났다. 2라운드까지 공동 39위로 이미향이 우승할 것으로 생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이미향도 이날 경기를 마친 뒤 “내가 우승할 것이 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사실 오늘도

선두와 6타 차이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1, 2라운드에 부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골프 백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미향은 미국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그런데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면서 급기야 예정됐던 연결편 비행기도 탈 수 없었다.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음 비행기를 타고 에딘버러에 도착한 이미향은 두 번째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골프 백이 수요일에 도착해서

화요일 연습 라운드는 클럽을 빌려서 치러야 했다”며 “1, 2라운드에서 샷 감은 좋았지만 퍼트가 잘되지 않았다. 3라운드부터 퍼트가 잘 되면서 지금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종라운드에서도 이미향은 전반 9개 홀에서 5타를 줄이며 선두를 따라잡았으나 웹이 14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는 바람에 다시 2타 차 2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웹이 16번 홀 보기, 17번 홀(이상 파4) 더블보기로 3타를 한꺼번에 잃은 덕에 역전 우승이 성사됐다. /연합뉴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11월 도쿄돔서 한·일전으로 개막

오는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이 한 일전으로 막을 올린다.

올 시즌 처음 치러지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의 일정이 지난 31일 발표됐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은 아시아 야구 발전과 교류를 통한 야구 세계화를 목표로 KBO와 함께 일본야구기구(NPB),

대만프로야구리그(CPBL) 등 아시아 3개 프로야구 기구가 신설한 국가대항전이다.

대회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되며, 팀당 2경기씩 예선 3경기와 결승전 1경기 등 총 4경기가 펼쳐진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11월 16일 일본과 개막전을 치른 뒤 17일 대만과 맞붙는다. 18일에는 대만과 일본이 만나며, 19일 예선 1-2위 팀 간 결승전이 치러진다.

출전 자격은 24세 이하(2017 대회 기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프로 입단 3년 차 이하의 선수로 제한된다. 또 팀당 3장의 와일드카드가 주어진다.

경기 일정과 함께 대회 규정도 일부 확정됐다. 투구수 제한과 골드게임은 없으며, 선발투수는 경기 전일 발표한다.

10회부터는 무사 1-2루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승부처기가 적용되며, 전 경기에 지명타자 제도를 시행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인비, 11일 KLPGA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

'골프 여제' 박인비(2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4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6억원)에 출전한다.

박인비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브라운앤뉴는 지난 3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제주개발공사 후원을 받는 박인비는 1회 대회부터 꾸준히 출전해왔지만,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올해 박인비의 우승 여부는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 대회는 지난 23일 끝난 MY 문영퀸즈파크 챔피언십 이후 2주간 이어진 KLPGA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되는 하반기 첫 대회로 8월 11일에 개막해 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대회 장소는 제주도 제주시 오라 컨트리클럽이다.

박인비는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국내 필드에 모습을 보이게 됐다. 아직 KLPGA 투어 대회 우승은 없다. /연합뉴스